

여호수아(12) 속히 올라와 구하소서

■ 본문

수 10:1-7

■ 시작 찬송가

431장

■ 헌금 찬송가

484장(통 533장)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격파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속여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그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옥여싸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광야를 지난 후 가나안의 남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복해갔다면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동편의 요단강을 건너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중앙에서부터 정복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남과 북 그리고 발달한 도시들이 많은 서쪽에 둘러싸인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항상 좋은 곳에서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길이 열리게 됩니다.

(1)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

히위족속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것도 억울한데 이 일로 인해 가나안의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성읍과 힘을 합쳐 기브온을 공격해옵니다. 자신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가까워진 기브온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 10:3-4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은 우리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배반자가 됩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연합전선을 이뤄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연합전선의 위협 속에도 하나님의 손을, 이스라엘의 손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더디 오지 마시고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수 10:6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2)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

기브온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기브온은 원래부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봤을 때 히위 족속의 기브온은 그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 맺은 것을 명분 삼아 여러 왕과 연합해 기브온 성읍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기브온은 '왕도'라고 표현되는 데 이는 왕이 다스리는 왕국과 같은 말입니다. 기브온은 왕이 다스리는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수 10:2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큰 교회 되어 뜨거움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 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가 수로를 타고 라오디게아로 오며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에 머무르며 뜨거움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계 3:14-22)

기브온은 강한 족속이지만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지낼 때도 사탄의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약한 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도 공격합니다. 강력한 삼손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벤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브온 족속은 약하고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한 족속으로 힘도 있고 싸울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을 붙잡는 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예루살렘왕 아도니세덱

예루살렘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진멸한 것과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을 맺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보다 그들과 싸우는 결정을 내립니다. 잘 듣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결정도 잘 내려야 합니다.

수 10:1-2 그 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도니세덱은 아모리 족속이 힘을 합치면 이들을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배반한 기브온을 치려는 목적도 있었고, 자신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연합 전선을 꾸리고 힘을 합쳐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신 자가 승리합니다.

연합군이 형성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과 여러 번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전투로 다섯 성읍을 이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적을 만나면 마음이 상심 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마주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화위복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모든 뜻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주종관계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도울 때는 주종의 관계가 아닌 친구의 관계로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도우실 때는 친구처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어려움을 만난 이웃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 예루살렘왕 아도니세덱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 '내 주는 정의이시다'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왕에게 붙여진 공식 명칭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이 성은 살렘과 같은 곳입니다.

살렘의 초기 왕인 멜기세덱은 아브람(아브라함)을 축복하고(창 14:18) 하나님께 쓰임 받는 왕이었지만, 본문 속 아도니세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한마디

하나님! 어느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